치과의원 환자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박정순 · 김영임¹ · 장선희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¹전주비전대학 치위생과

색인 : 구강위생용품, 인지도, 용도이해, 사용실태

1. 서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¹⁾.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일부로서, 구강건강상태가 불량할 때는 대인관계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2,3)}. 우리나라 국민의 치아발거의 주된 원인이 되는 구강병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다⁴⁾. 구강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강병의 발생요인이 되는 치면세균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⁵⁾. 치면세균막이란 치아표면의 점착성 당단백질 피막에 구강내 세균이 부착한 후 군락을 형성하여 치면의 일부를 덮고 있는 막을 말하며⁶⁾ 치면세균막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칫솔질이다⁷⁾. 그러나 치간 부위는 치아배열과 인접한 치관 및 치조골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⁸⁾, 적절한 형태를 이루지 못하면 위생관리가 어려워 치간유두의 기능뿐만 아니라 치주조직에도

중대한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⁹⁾.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구강위생이 중요하고, 특히 치간부는 칫솔질만으로는 완벽한 치면세균막 제거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¹⁰⁾. 따라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여 치면세균막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치은의 적절한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치은상피나 치은열구 내 상피세포의 각화를 촉진시켜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²⁾.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권장되고 있는 구강위생용품으로는 우식예방용 불소양치용액 및 치간청결용 치실, 치간칫솔, 물사출기 등이 있고, 고정성 보철환자에게는 치실과 치실고리, 치간칫솔, 치끈, 부분칫솔 등이 권장되고 있으며, 고무치간자극기와 치은자극기가 치은 마사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권장되고 있다. 서 등¹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 등²⁾은 서울시 가정구강보건실태 조사결과 치실질과 치간칫솔질 실천자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구강보건에 관한 구강보건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심과 김¹¹⁾ 및 정 등¹⁾은 치간칫솔의 두부형태에 따라 치면세균막 제거율이 다르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등¹²⁾과 윤 등¹³⁾은 전동칫솔을 사용하여 회전법으로 칫솔질을 시행할 경우 일반 칫솔 사용 보다 치면세균막 제거 및 치은염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구강위생용품들의 올바른 사용법은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잘못된 인지와 사용법은 오히려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⁰⁾. 따라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하여 구강위생용품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¹⁴⁾. 또한, 예방적 차원의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방법들을 폭넓게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 주어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⁵⁾. 그러기 위해서 향후 구강위생용품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북지역의 치과의원에 내원한 치과환자를 중심으로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북지역 치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비확률표본추출법인 편의추출법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이 완료된 4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86부를 제외한 314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전북지역 치과의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치과위생사가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을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구강환경관리용품 사용실태 조사에 관한 설문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2,3,5,15)}.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6문항과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χ^2 분포를 따르는 교차분석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3. 연구성적

3.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0.4%, 여자가 59.6%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이 52.2%, 미혼이 47.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장년층, 노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청년층인 20~39세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 22.0%, 학생 16.9%, 회사원, 기타 13.4% 순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일반적인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하였으며, 100~300만 원 미만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2.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용도이해, 사용실태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는 경우는 치실 74.6%, 전동칫솔 64.4%, 양치용액 6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용도이해는 이쑤시

개가 77.7%, 전동칫솔 64.8%, 양치용액 59.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구강위생용품은 이쑤시개 43.2%, 치실 38.0%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구강위생용품으로 전동칫솔이 8.3% 나타났다(표 2).

표 1.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127	40.4
	여자	187	59.6
결혼 여부	기혼	164	52.2
	미혼	150	47.8
연령	20~39세	200	63.7
	40~64세	88	28.0
	65세 이상	26	8.3
직업	학생	53	16.9
	공무원	26	8.3
	서비스업	38	12.1
	전문직	69	22.0
	회사원	42	13.4
	농/수/임업	6	1.9
	가사	38	12.0
	기타	42	13.4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77	24.5
	100~300만 원 미만	170	54.1
	100만 원 미만	67	21.4
학력	대졸 이상	198	63.1
	고졸	81	25.8
	중졸 이하	35	11.1
합계		314	100.0

표 2. 구강위생용품 인지도, 용도이해, 현재 사용률(중복응답)

	인지도		용도이해		사용실태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이쑤시개	190	60.5	188	77.7	105	43.2
치실	179	74.6	179	57.0	92	38.0
치간칫솔	128	54.5	116	50.0	60	26.1
전동칫솔	150	64.4	149	64.8	26	8.3
양치용액	139	61.0	134	59.8	66	29.3

3.3.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구강위생용품 인지도, 용도이해, 사용실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쑤시개의 용도를 이해하는 환자에게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 50.0%, 보통이다 30.3%, 건강하지 않다가 19.7%로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치실의 인지도와 용도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1.4%와 49.2%로 나타났으며,

표 3.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항목	구분	주관적 구강건강			전체	X ² (P)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쑤시개	인지도	인지	94(49.5)	55(28.9)	41(21.6)	190(100.0)	2.398
		불인지	21(38.2)	18(32.7)	16(29.1)	55(100.0)	(0.302)
	용도	이해	94(50.0)	57(30.3)	37(19.7)	188(100.0)	7.138
		불이해	20(37.0)	14(25.9)	20(37.0)	54(100.0)	(0.028)*
	사용 실태	현재 사용	54(51.4)	31(29.5)	20(19.0)	105(100.0)	1.579
		미사용	62(44.9)	41(29.7)	35(25.4)	138(100.0)	(0.454)
치실	인지도	인지	92(51.4)	53(29.6)	34(19.0)	179(100.0)	10.780
		불인지	18(29.5)	21(34.4)	22(36.1)	61(100.0)	(0.005)*
	용도	이해	88(49.2)	53(29.6)	38(21.2)	179(100.0)	14.064
		불이해	24(38.7)	20(32.3)	18(29.0)	62(100.0)	(0.001)*
	사용 실태	현재 사용	53(57.6)	23(25.0)	16(17.4)	92(100.0)	6.647
		미사용	61(40.7)	50(33.3)	39(26.0)	150(100.0)	(0.036)
치간칫솔	인지도	인지	68(53.1)	34(26.6)	26(20.3)	128(100.0)	5.196
		불인지	41(38.3)	36(33.6)	30(28.0)	107(100.0)	(0.074)
	용도	이해	62(53.4)	32(27.6)	22(19.0)	116(100.0)	4.500
		불이해	47(40.5)	36(31.0)	33(28.4)	116(100.0)	(0.105)
	사용 실태	현재 사용	48(80.8)	2(3.3)	10(16.7)	60(100.0)	5.942
		미사용	107(62.9)	13(7.6)	50(29.4)	170(100.0)	(0.050)
전동칫솔	인지도	인지	76(50.7)	40(26.7)	34(22.7)	150(100.0)	1.772
		불인지	35(42.2)	28(33.7)	20(24.1)	83(100.0)	(0.412)
	용도	이해	115(77.2)	27(18.1)	7(4.7)	149(100.0)	2.249
		불이해	56(69.1)	18(22.2)	7(8.6)	81(100.0)	(0.325)
	사용 실태	현재 사용	12(46.2)	5(19.2)	9(34.6)	26(100.0)	2.810
		미사용	96(48.5)	60(30.3)	42(21.2)	198(100.0)	(0.245)
양치용액	인지도	인지	73(52.5)	39(30.3)	27(19.4)	139(100.0)	3.987
		불인지	36(40.4)	27(30.3)	26(29.2)	89(100.0)	(0.136)
	용도	이해	72(53.7)	37(27.6)	25(18.7)	134(100.0)	5.666
		불이해	36(40.4)	26(28.9)	28(31.1)	90(100.0)	(0.049)*
	사용 실태	현재 사용	36(54.5)	18(27.3)	12(18.2)	66(100.0)	1.880
		미사용	73(45.9)	45(28.3)	41(25.8)	159(100.0)	(0.391)

* $p < 0.05$

양치용액에 대한 용도를 이해하는 경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3.4.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구강진료 필요성

치실의 용도이해에 따른 구강진료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78.2%, 보통이다 17.9%, 필요하지 않다 3.9%로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표 4.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구강진료 필요성

항목	구분	구분	구강진료 필요성			전체	X ² (P)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이쑤시개	인지도	인지	145(76.3)	31(16.3)	14(7.4)	190(100.0)	2.255
		불인지	40(72.7)	13(3.1)	2(3.6)	55(100.0)	(0.324)
	용도이해	이해	145(77.1)	32(17.0)	11(5.9)	188(100.0)	1.041
		불이해	38(70.4)	12(22.2)	4(7.4)	54(100.0)	(0.594)
		현재 사용	77(73.3)	19(18.1)	9(8.6)	105(100.0)	1.837
		미사용	106(76.8)	26(18.1)	6(4.1)	138(100.0)	(0.399)
치실	인지도	인지	140(78.2)	29(16.2)	10(5.6)	179(100.0)	3.905
		불인지	40(65.6)	16(26.2)	10(5.6)	61(100.0)	(0.142)
	용도이해	이해	140(78.2)	32(17.9)	7(3.9)	179(100.0)	9.194
		불이해	40(64.5)	13(21.0)	9(14.5)	62(100.0)	(0.010)*
		현재 사용	71(77.2)	14(15.2)	7(7.6)	92(100.0)	1.501
		미사용	109(72.7)	32(21.3)	9(6.0)	150(100.0)	(0.472)
치간칫솔	인지도	인지	100(78.1)	18(14.1)	10(7.8)	128(100.0)	3.950
		불인지	77(72.0)	25(23.3)	5(4.7)	107(100.0)	(0.139)
	용도이해	이해	91(78.4)	17(14.7)	8(6.9)	116(100.0)	2.449
		불이해	84(72.4)	26(22.4)	6(5.2)	116(100.0)	(0.294)
		현재 사용	44(73.3)	10(16.7)	6(10.0)	60(100.0)	2.259
		미사용	129(75.9)	33(19.4)	8(4.7)	170(100.0)	(0.323)
전동칫솔	인지도	인지	117(78.0)	26(17.3)	7(4.7)	150(100.0)	2.739
		불인지	57(68.7)	19(22.9)	7(8.4)	83(100.0)	(0.254)
	용도이해	이해	115(77.2)	27(18.1)	7(4.7)	149(100.0)	2.249
		불이해	56(69.2)	18(22.2)	7(8.6)	81(100.0)	(0.325)
		현재 사용	18(69.2)	6(23.1)	2(7.7)	26(100.0)	0.254
		미사용	146(73.7)	40(20.2)	12(6.1)	198(100.0)	(0.881)
양치용액	인지도	인지	110(79.1)	20(14.4)	9(6.5)	139(100.0)	5.513
		불인지	60(67.4)	24(27.0)	5(5.6)	89(100.0)	(0.064)
	용도이해	이해	103(76.9)	22(16.4)	9(6.7)	134(100.0)	1.696
		불이해	64(71.1)	21(23.3)	5(5.6)	90(100.0)	(0.428)
		현재 사용	48(72.7)	12(18.2)	6(9.1)	66(100.0)	1.353
		미사용	119(74.8)	32(20.1)	8(5.1)	159(100.0)	(0.508)

* $p < 0.05$

었다($p < 0.05$). 그 외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구강진료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표 4).

3.5.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사용동기 및 미사용 동기, 향후 사용 가능성

3.5.1. 사용동기

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

표 5.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사용동기

항목	구분	인지	구강위생용품 사용동기					전체	X ² (P)
			치과 권장	판매처 권장	광고 홍보	독단적 판단	기타		
이수 시개	인지	인지	66(34.7)	15(7.9)	34(17.9)	46(24.2)	29(2.3)	190(100.0)	2.925
	용도	불인지	24(43.6)	6(10.9)	8(14.5)	12(21.8)	5(9.2)	55(100.0)	(0.570)
		이해	69(36.7)	13(6.9)	36(19.1)	42(22.3)	28(15.0)	188(100.0)	5.240
	이해	불이해	20(37.1)	8(14.8)	6(11.1)	14(25.9)	6(11.1)	54(100.0)	(0.264)
		사용	현재 사용	30(28.6)	10(9.5)	24(22.9)	27(25.7)	14(13.3)	105(100.0)
	실태	미사용	61(44.3)	14(10.1)	18(13.0)	27(19.6)	18(13.0)	138(100.0)	(0.083)
치실	인지	인지	76(42.5)	13(7.3)	32(14.8)	36(20.1)	22(12.3)	179(100.0)	7.301
	용도	불인지	16(26.2)	6(9.8)	9(14.8)	18(29.5)	12(19.7)	61(100.0)	(0.121)
		이해	76(42.4)	14(7.8)	30(16.8)	34(19.0)	25(14.0)	179(100.0)	6.354
	이해	불이해	17(27.4)	5(8.1)	11(17.7)	20(32.3)	9(14.5)	62(100.0)	(0.174)
		사용	현재 사용	45(48.9)	5(5.4)	13(14.1)	19(20.7)	10(10.9)	92(100.0)
	실태	미사용	48(32.0)	15(10.0)	28(18.7)	34(22.7)	25(16.6)	150(100.0)	(0.099)
치간 칫솔	인지	인지	61(47.7)	5(3.9)	17(13.3)	30(23.4)	15(11.7)	128(100.0)	13.931
	용도	불인지	30(28.0)	13(12.2)	22(20.6)	24(22.4)	18(16.8)	107(100.0)	(0.008)*
		이해	58(50.0)	3(2.6)	14(12.1)	26(22.4)	15(12.9)	116(100.0)	20.358
	이해	불이해	30(25.9)	15(12.9)	25(21.6)	28(24.1)	18(15.5)	116(100.0)	(0.000)*
		사용	현재 사용	34(56.7)	1(1.6)	4(6.7)	15(25.0)	6(10.0)	60(100.0)
	실태	미사용	54(31.7)	17(10.0)	35(20.6)	37(21.8)	27(15.9)	170(100.0)	(0.002)*
전동 칫솔	인지	인지	58(38.7)	12(8.0)	24(16.0)	31(20.7)	25(16.6)	150(100.0)	2.960
	용도	불인지	29(34.9)	6(7.2)	16(19.3)	23(27.8)	9(10.8)	83(100.0)	(0.565)
		이해	60(40.3)	12(8.1)	23(15.4)	29(19.4)	25(16.8)	149(100.0)	5.707
	이해	불이해	25(30.9)	6(7.4)	17(21.0)	24(29.6)	9(11.1)	81(100.0)	(0.222)
		사용	현재 사용	11(42.3)	2(7.7)	4(15.4)	4(15.4)	5(19.2)	26(100.0)
	실태	미사용	71(35.9)	17(8.6)	33(16.7)	50(25.3)	27(13.5)	198(100.0)	(0.784)
양치 용액	인지	인지	52(37.4)	9(6.5)	27(19.4)	32(23.0)	19(13.7)	139(100.0)	1.348
	용도	불인지	31(34.8)	8(9.0)	14(15.7)	21(23.6)	15(16.9)	89(100.0)	(0.853)
		이해	52(38.8)	10(7.5)	26(19.4)	31(23.2)	15(11.1)	134(100.0)	3.314
	이해	불이해	31(34.4)	7(7.8)	13(14.4)	22(24.4)	17(19.0)	90(100.0)	(0.507)
		사용	현재 사용	28(42.4)	5(7.6)	13(19.7)	13(19.7)	7(10.6)	66(100.0)
	실태	미사용	50(34.6)	13(8.1)	26(16.4)	40(25.2)	25(15.7)	159(100.0)	(0.636)

* $p < 0.05$

용실태에 따른 사용동기는 <표 5>와 같다. 치간칫솔을 인지하고 있는 47.7%와 용도를 이해하고 있는 50.0%, 현재 사용하고 있는 56.7% 응답자는 치과에서 권장하여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3.5.2. 미사용 동기

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

표 6.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미사용 동기

항목	구분	구강위생용품 미사용 동기					전체	X ² (P)
		치과 권장 하지 않아서	구입하기 쉽지않아서	가격이 비싸서	사용불편	기타		
이쑤시개	인지도 인지	20(10.5)	41(21.6)	27(14.2)	45(23.7)	57(30.0)	190(100.0)	5.122
	불인지	9(16.4)	12(21.8)	10(18.2)	6(10.9)	18(32.7)	55(100.0)	(0.275)
	용도 이해	21(11.2)	43(22.9)	23(12.2)	44(23.4)	57(30.3)	188(100.0)	4.748
	이해 불이해	8(14.8)	11(20.4)	11(20.4)	7(13.0)	17(31.4)	54(100.0)	(0.314)
	사용 현재 사용	13(12.4)	24(22.8)	13(12.4)	27(25.7)	28(26.7)	105(100.0)	3.762
	실태 미사용	17(12.3)	28(20.3)	23(16.7)	24(17.4)	46(33.3)	138(100.0)	(0.439)
치실	인지도 인지	21(11.7)	43(24.0)	27(15.1)	39(21.8)	49(27.4)	179(100.0)	1.678
	불인지	6(9.8)	11(18.0)	9(14.8)	14(23.0)	21(34.4)	61(100.0)	(0.795)
	용도 이해	21(11.7)	44(24.6)	27(15.1)	38(21.2)	49(27.4)	179(100.0)	3.351
	이해 불이해	7(11.3)	9(14.5)	9(14.5)	15(24.2)	22(35.5)	62(100.0)	(0.501)
	사용 현재 사용	11(12.0)	28(30.4)	18(19.6)	13(14.1)	22(23.9)	92(100.0)	12.709
	실태 미사용	19(12.7)	24(16.0)	19(12.7)	40(26.6)	48(32.0)	150(100.0)	(0.013)*
치간 칫솔	인지도 인지	14(10.9)	29(22.7)	18(14.1)	28(21.9)	39(30.4)	128(100.0)	0.512
	불인지	14(13.1)	23(21.5)	17(15.9)	23(21.5)	30(28.0)	107(100.0)	(0.972)
	용도 이해	14(12.0)	27(23.3)	17(14.7)	22(19.0)	36(31.0)	116(100.0)	1.293
	이해 불이해	14(12.1)	25(21.6)	15(12.9)	29(25.0)	33(28.4)	116(100.0)	(0.863)
	사용 현재 사용	7(11.7)	14(23.3)	11(18.3)	8(13.3)	20(33.4)	60(100.0)	4.600
	실태 미사용	22(12.9)	37(21.8)	21(12.4)	43(25.3)	47(27.6)	170(100.0)	(0.331)
전동 칫솔	인지도 인지	16(10.7)	32(21.3)	20(13.3)	37(24.7)	45(30.0)	150(100.0)	1.758
	불인지	11(13.3)	20(24.1)	13(15.6)	15(18.1)	24(28.9)	83(100.0)	(0.780)
	용도 이해	17(11.4)	31(20.8)	21(14.1)	36(24.2)	44(29.5)	149(100.0)	0.701
	이해 불이해	10(12.3)	19(23.5)	11(13.6)	16(19.7)	25(30.9)	81(100.0)	(0.951)
	사용 현재 사용	2(7.7)	7(26.9)	2(7.7)	6(23.1)	9(34.6)	26(100.0)	2.242
	실태 미사용	26(13.1)	39(19.7)	30(15.2)	45(22.7)	58(29.3)	198(100.0)	(0.691)
양치 용액	인지도 인지	19(13.7)	29(20.9)	18(12.9)	32(23.0)	41(29.5)	139(100.0)	1.718
	불인지	8(9.0)	19(21.3)	15(16.9)	19(21.3)	28(31.5)	89(100.0)	(0.787)
	용도 이해	19(14.2)	29(21.6)	18(13.4)	29(21.6)	39(29.2)	134(100.0)	1.568
	이해 불이해	8(8.9)	19(21.1)	14(15.6)	21(23.3)	28(31.1)	90(100.0)	(0.814)
	사용 현재 사용	10(15.2)	16(24.2)	10(15.2)	10(15.2)	20(30.2)	66(100.0)	3.087
	실태 미사용	18(11.3)	32(20.1)	22(13.8)	40(25.2)	47(29.6)	159(100.0)	(0.543)

* $p < 0.05$

용실태에 따른 미사용 동기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환자 중 26.6%는 사용하기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그 외 환자의 구강 위생용품 미사용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은 아니었다(표 6).

3.5.3. 향후 사용 가능성

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향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

표 7.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향후 사용 가능성

항목	구분	향후 사용 가능성			전체	$\chi^2(P)$	
		있다	없다	모름			
이쑤시개	인지도	인지	125(65.8)	15(7.9)	50(26.3)	190(100.0)	0.529
		불인지	39(70.9)	4(7.3)	12(21.8)	55(100.0)	(0.767)
	용도이해	이해	124(66.0)	12(6.4)	52(27.6)	188(100.0)	2.107
		불이해	39(72.2)	5(9.3)	10(18.5)	54(100.0)	(0.349)
		현재 사용	62(59.0)	11(10.5)	32(30.5)	105(100.0)	6.014
실태	미사용	100(72.5)	6(4.3)	32(23.2)	138(100.0)	(0.049)	
치실	인지도	인지	133(74.3)	13(7.3)	33(18.4)	179(100.0)	19.026
		불인지	28(45.9)	5(8.2)	28(45.9)	61(100.0)	(0.000)*
	용도이해	이해	132(73.7)	12(6.7)	35(19.6)	179(100.0)	14.064
		불이해	30(48.4)	6(9.7)	26(41.9)	62(100.0)	(0.001)*
		현재 사용	74(80.4)	7(7.6)	11(12.0)	92(100.0)	14.858
실태	미사용	88(58.7)	11(7.3)	51(34.0)	150(100.0)	(0.001)*	
치간 칫솔	인지도	인지	97(75.8)	10(7.8)	21(16.4)	128(100.0)	12.354
		불인지	61(57.0)	7(6.5)	39(36.5)	107(100.0)	(0.002)*
	용도이해	이해	91(78.4)	6(5.2)	19(16.4)	116(100.0)	12.648
		불이해	66(56.9)	9(7.8)	41(35.3)	116(100.0)	(0.002)*
		현재 사용	48(80.0)	2(3.3)	10(16.7)	60(100.0)	5.942
실태	미사용	107(62.9)	13(7.6)	50(29.5)	170(100.0)	(0.049)*	
전동 칫솔	인지도	인지	107(71.3)	9(6.0)	34(22.7)	150(100.0)	2.451
		불인지	51(61.5)	6(7.2)	26(31.3)	83(100.0)	(0.294)
	용도이해	이해	103(69.1)	8(5.4)	38(25.5)	149(100.0)	1.106
		불이해	52(64.2)	7(8.6)	22(27.2)	81(100.0)	(0.575)
		현재 사용	20(77.0)	3(11.5)	3(11.5)	26(100.0)	4.305
실태	미사용	130(65.8)	11(5.5)	57(28.7)	198(100.0)	(0.116)	
양치 용액	인지도	인지	101(72.7)	7(5.0)	31(22.3)	139(100.0)	6.092
		불인지	51(57.3)	9(10.1)	29(32.6)	89(100.0)	(0.048)*
	용도이해	이해	95(70.9)	4(3.0)	35(26.1)	134(100.0)	7.876
		불이해	54(60.0)	11(12.2)	25(27.8)	90(100.0)	(0.019)*
		현재 사용	48(72.7)	2(3.1)	16(24.2)	66(100.0)	2.733
실태	미사용	101(63.5)	13(8.2)	45(28.3)	159(100.0)	(0.255)	

* $p < 0.05$

는 <표 7>과 같다. 치실을 인지하고 있는 74.3%와 치간칫솔을 인지하고 있는 75.8%가 '향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치실의 용도를 이해하고 있는 73.7%와 치간칫솔의 용도를 이해하는 78.4%가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양치용액을 인지하고 있는 72.7%와 용도를 이해하고 있는 70.9%가 '향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구강건강에 불편함이 있어 치과의원에 내원하고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각 개인이 구강내 치면세균막을 관리하는 방법 중 칫솔질이 가장 효과적이나 칫솔질만으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으며, 특히 치간에 있는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기는 더욱 어렵다. 치간 청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강위생용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용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 관리와 청결 및 치은 마사지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¹⁶⁾.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에게 구강위생용품 중 이쑤시개, 치실, 치간칫솔, 전동칫솔, 양치용액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현재 사용 여부를 복수응답으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치실의 인지도가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나, 김¹⁷⁾의 보고 74.1%와 유사하였다. 또한 구강위생용품 중 이쑤시개의 용도를 77.7%가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¹⁷⁾의 보고 54.3%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43.2%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¹⁷⁾의 보고 18.1%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중복응답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강보건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구강건강 인식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다¹⁸⁾.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의 척도는 각 개인이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근거하여 측정되며, 치아나 잇몸 또는 구강건강에 대한 단문항 자기평가도 빈번히 쓰이는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의 척도이다¹⁹⁾. 측정이 간단한 주관적 구강건강 지표를 적극 이용하여 치과치료의 필요도를 탐색하거나, 치료결과의 평가에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지만 환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종종 임상가의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¹⁸⁾.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구강건강이 건강하다고 한 환자의 경우 이쑤시개의 용도를 이해하는 환자가 50.0%, 치실의 인지도가 있는 환자 51.4%와 용도를 이해하고 있는 환자 49.2%, 양치용액에 대한 용도를 이해하는 있는 환자 53.7%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환자가 구강위생용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이쑤시개의 인지도 60.5%, 양치용액의 인지도 61.0%는 김³⁾의 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광고 혹은 상점의 판촉물, 음식점 내에 비치되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인지도와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치간칫솔 및 인지도와 용도를 이해한 것에 비해 사용률이 저조한 전동칫솔 등을 대중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구강건강 인식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객관적 구강상태 요인, 구강보건의식행태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¹⁸⁾. 따라서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가 구강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구강위생용품 이용도나 중요성에 관한 향후 연구를 함으로써 구강건강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강위생용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계속관리에 의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상태에 따른 구강진료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치실의 용도를 이해한 환자는 구강진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78.2%로 나타났으나, 기타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구강진료실을 방문한 환자들이 치과진료 후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사료된다. 한편 장 등⁵⁾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치과의료기관에서는 구강보건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구강의 특성에 알맞는 구강위생용품의 선택과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¹⁷⁾의 보고에서 일반 성인의 74.1%가 치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37.9%가 치실 사용법을 숙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환자 40.7%, 치주질환자 26.9%, 인공치아 매식환자 27.8%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¹⁵⁾은 자신의 잇몸이나 치아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강위생용품을 선택하는 인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상태에 따른 사용 동기를 살펴본 결과 치간칫솔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 47.7%, 용도를 이해하고 있는 환자 50.0%,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자 56.7%가 치과에서 권장하여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치과에서 권장하는 구강위생용품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김¹⁷⁾은 일반인들이 구강위생용품을 접

하게 된 경로가 치과에서 권장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 경우가 45.0%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심 등¹¹⁾은 실험적 연구를 통해 치면세균막 제거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시판되는 치간잇솔의 치면세균막 제거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박¹⁵⁾은 치과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구강위생용품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광고 효과에 의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구강보건전문인력과 상담하여 개인에게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선택하고 정확하게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⁷⁾.

또한 구강위생용품 미사용 동기를 살펴본 결과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 중 26.6%가 사용하기 불편해서라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구강상태에 맞는 올바른 치실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라고 사료된다. 한편 김³⁾은 보험설계사와 백화점 매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군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45.1%, 일반사무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서비스군에서는 30.9%로 보고한 바 있으며, 김¹⁷⁾과 박¹⁵⁾은 자신에게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중요성을 지각할 때 그 실천율이 상승될 것이라 사료되며, 구강위생용품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자료 제공 및 실험과 더불어 꾸준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사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치실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 중 74.3%가, 치간칫솔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 중 75.8%가, 치간칫솔의 용도를 이해한 환자 중 78.4%가, 치간칫솔을 현재 사용하는 환자 중 80.0%가 향후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양치용액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 중 72.7%가, 양치용액의 용도를 이해

하고 있는 환자 중 70.9%가 향후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치실과 치간칫솔을 인지하고 용도를 이해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김³⁾의 보고에 의하면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후 만족도가 78.5%로 나타났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가 96.0%로 나타난 바 있어 치과의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동기유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조사대상자를 전북지역의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추후 치과진료실의 질환별 환자요구도와 측정된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에 따른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9년 6월 전북지역 치과의원을 내원한 환자 314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위생용품 중 인지도는 치실이 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용도이해는 이쭉시개가 77.7%로 가장 높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쭉시개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구강위생용품 인지도와 용도이해 및 사용실태

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을 살펴보면, 이쭉시개의 용도를 이해하는 환자에게서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가 건강하다고 50.0%가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치실의 인지도와 용도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 건강하다가 51.4%와 49.2%로 조사되었으며, 양치용액에 대한 용도를 이해하는 경우 건강하다가 53.7%로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3. 구강위생용품 중 치실의 용도이해에 따른 구강진료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78.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4. 치과에서 권장하여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환자들은 치간칫솔의 사용을 인지하고, 용도를 이해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p < 0.05$).
5. 구강위생용품 중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미사용 동기는 기타의 이유와 사용하기 불편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6. 구강위생용품 중 치실과 치간칫솔의 인지도, 용도이해, 현재 사용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향후 사용 가능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양치용액의 인지도와 용도이해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의 향후 사용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5$).

치과위생사들은 환자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치과진료실의 환자들이 자신의 질환에 따른 요구에 적당한 구강위생용품을 선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정미정, 신승철, 조자원. 고정성 치열교정 장치 장착치아에 대한 치간칫솔의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7;31(4): 602-610.
- 이영혜,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 서울특별시 가정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0;24(3):239-257.
- 김명은. 일부 서비스 종사자들의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3)37-52.
- 김종배, 최유진. 공중구강보건학. 재개정판. 서울:고문사;2000;29-31,68-84.
- 장경애, 성미경, 강현경, 최정옥, 김윤신. 일부 치과병원 흡연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이용도. 한국치위생과학회 2008;8(1):7-12.
- 양수정, 문혁수, 김종배. 잇솔질 및 헹글질의 구취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7(2):268-278.
- 배광학, 이병진, 장윤경 외 9인. NaF CPC 녹차추출액 및 솔잎추출물을 배합한 구강양치액의 치주질환예방효과와 구취감소효과 및 치아우식증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1;25(1):51-59.
- Hassell TM. Tissue and cells of the Periodontium. Periodontol 2000 1993;3: 9-38.
- Heins PJ, Wieder SM. A histologic study of the width and nature of inter-radicular space in human adult pre-molars and molar. J Dent Res 1986;65:948-951.
- 서은주, 신승철, 서현석, 김은주, 장연수. 한국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3;27(2)177-194.
- 심형순, 김동기. 치간잇솔의 두부형태에 따른 치면세균막 제거효과.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29(3):360-367.
- 이천희, 장연수, 이지원, 신승철. 미세진동자극을 이용한 구강물리요법의 치면세균막제거 및 치은염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8;32(1):96-104.
- 윤신중, 김광영, 신승철. 전동칫솔의 구강청결 효과에 관한 임상적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7(2):356-369.
-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진보형, 송연희. 구강환경관리용품의 선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2;14:493-504.
- 박홍련. D중공업 근로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조사. 치위생과학회지 2006;6(2): 93-99.
- 구경미, 김연화, 김인숙, 김혜진 외 10인. 구강보건교육학. 제2판. 서울:고문사;2008: 115-116.
- 김수경.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2;2(2):95-103.
- 김영남, 권호근, 정원균, 조영식, 최연희. 한국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29(3):250-260.
- 김혜영. 단문항 자기평가에 의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29(4):496-505.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recognition, understanding of the use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oral hygiene devices in dental clinics patients

Chung-Soon Park · Young-Im Kim¹ · Sun-Hee Jang

Dep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¹Dept. of Dental Hygiene, Vision University of Jeonju

Key words : oral hygiene devices, recognition, understanding of the use, application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us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supplies among dental clinic patients in a bid to stress the necessity of education on the right awareness and use of oral hygiene supplie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nd ultimately to help promote the oral health of people in general.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14 patients who visited dental clinics in North Jeolla Province in June 2009.

Results :

1. Out of oral hygiene supplies, the largest number of the patients investigated(74.6%) were best cognizant of dental floss, and the greatest group(77.7%) had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use of toothpick. Currently, the oral hygiene supplies that were most widely in use were toothpicks(43.2%).
2. As to the relationship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us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supplies to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50.0 percent of the patients who understood the use of toothpick found themselves to be in good health, and the gaps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ose who were aware of dental floss, the largest group(51.4%) considered themselves to be in good shape, and in the event of those who understood the use of dental floss, the greatest group(49.2%) deemed themselves to be in good health. Out of those who understood the use of mouse rinse, the largest group(53.7%) thought they were in good

health($p < 0.05$).

3. Recognition of interdental brush, understanding of its use and whether to use it currently or not were identified as parents to use oral hygiene supplies recommended by dental clinics($p < 0.05$).
4. Recognition of interdental brush, understanding of its use and whether to use it currently or not were identified as patients to use oral hygiene supplies recommended by dental clinics($p < 0.05$).
5. The largest group of those who didn't put dental floss to use didn't use it for other reasons unspecified in the questionnaire, and the second greatest group of them didn't use it since it was so onerous to do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ason why they didn't use the oral hygiene supplies($p < 0.05$).
6. Awareness of dental floss and interdental brush, understanding of the use of the two and whether to use the two at present or not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o whether they were likely to use the oral hygiene supplies in the future. And whether they were likely to use the oral hygiene supplies in the futu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wareness of mouth rinse and understanding of the use of it as well($p < 0.05$).

Conclusions : Dental hygienists have to provide patients with various data of oral hygiene devices through oral health education and then only patients caring in dental clinics can choose the appropriate devices to claim for their own disease.